

1950년대 소설의 특징

- 1. 시대적 상황과 과제
 - - 전쟁의 충격과 폭력의 경험. 가치 붕괴와 와해. 분단체제의 돌입.
- 2. 문학 환경의 특징
 - - 신세대 작가들의 등장. 새로운 문학적 흐름
 - - 서구 실존주의 도입
- 1. 구세대 작가의 연속성
 - - 일상적, 가치 중립의 세계 (염상섭)
 - - 반공 이데올로기와 추상적 현실 (김동리)
- 2. 신세대 작가의 소설: 기법 혁신과 현실 비판의 소설
 - 1) 손창섭: 무의미 발견 허무의 세계
 - - 육체적 정신적 불구자의 인간형. 모멸과 불신.
 - - 미해결, 무의미에의 가치 부여, 주관적 관념 세계의 주관적 서술
 - 2) 장용학: 이데올로기 비판
 - - 알레고리 통한 보편적 전쟁의 파괴력 비판.
 - - 관념적, 주관적 세계의 한계.
 - 3) 선우휘:
 - - 상황에 대한 인간적 결단과 참여를 중시하는 행동주의적 태도
 - - <"불꽃"> <
 - 4) 오영수: 서정성의 세계
 - -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원시적 세계.
 - - 현재 시제 사용의 무시간성. (김윤식)
 - 4) 김성한: 풍자와 비판
 - - 전후 사회 비리와 문제에 대한 우화적 항의. 풍유적 방법 실천
 - -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구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적 인간형 창조
 - < 바비도 > < 오분간 >